

문체부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박물관운영활성화)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직접일자리/인턴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 필요(감액)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박물관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박물관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등록) 사립 및 대학박물관 대상 전문인력(학예, 교육) 인력 채용 지원

□ 예산 및 재원 : 일반회계

<표 1>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예산 및 재원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집행률)			(%)
□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4,469	-	3,687 (82.5)	4,389	80	1.8

□ 추진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 주요 지원대상

- 총 222명 * 청년층(35세 미만) 및 재정지원 취약계층 우대

- 학예인력 :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및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
- 교육인력 : 학예사·교사·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박물관 및 교육관련 기관 2년 이상 근무

□ 전달체계

- (한국박물관협회) 지원관 모집, 인력선발 및 배치, 지원인력 직무교육 등
- (지원관) 사업수행, 월별보고서 제출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전문인력 업무표준안 제작·배포 예정
- 박물관 및 인력 지원자격 검증 강화(등록요건 유지, 자격증 및 근무경력 증빙 필수, 부정행위사실 확인관 5년 지원 배제)
- 지원인력 근태관리 수시 점검(안면인식출결기 의무설치) 및 지원인력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추진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전체) 박물관·미술관진흥지원사업 참여자는 253명으로 참여자 규모가 크지 않은 편
- (성별) 성별로는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79.1%로 남성 참여자 규모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은 편
-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34세) 참여자 비율이 49.8%로 과반에 해당하였고, 다음으로 중년층(35~54세)이 40.7%, 장년층(55~64세)이 6.7%, 고령층(65세 이상)이 2.8%의 순으로 나타나 중년층 이하 연령대의 참여자가 많은 편

〈표 2〉 박물관운영활성화 사업 참여자(개인)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인턴형 전체	29,967 (100.0)	12,960 (43.2)	17,007 (56.8)	21,611 (72.1)	7,718 (25.8)	593 (2.0)	45 (0.2)
박물관운영 활성화	253 (100.0)	53 (20.9)	200 (79.1)	126 (49.8)	103 (40.7)	17 (6.7)	7 (2.8)

주: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박물관운영활성화 성과지표

(단위: %)

	반복 참여율	취약 계층 참여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 소요 기간	인턴 사업장 취업률
				6개월 (180일)		
직접일자리 전체	3.1	57.3	37.7	37.8	91.5	35.0
인턴형 전체	2.1	39.1	58.4	57.5	84.1	35.0
박물관운영활성화	12.3	65.2 (86.4)	33.1	60.0	95.3	13.2

주: 1) 취약계층 참여율의 () 안의 수치는 2020년 재정일자리사업 합동지침상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 대비 달성 비율임
2) 인턴사업장 취업률은 사업 종료 후에도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이 유지된 경우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순서와 상관없이 인턴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

□ 만족도 조사 결과

〈표 4〉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직접일자리 전체	3.92	3.92	3.79	4.06	3.66	3.38	3.81	4.05	4.09	3.88
인턴형 전체	3.87	3.87	3.75	4.03	3.56	3.42	3.76	4.01	4.05	3.81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3.87	3.88	3.77	4.26	3.52	3.18	3.82	4.08	4.06	3.76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사업 내용 관련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주관적 만족도: 사업 참여 후 사업에 대해 가지게 된 긍정 인식 정도 / 상대적 만족도: 사업 참여 전 기대대비 만족도

〈표 5〉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참여자 민간일자리 희망 및 이행여부 조사결과

(단위: 명, %)

	전체	민간일자리 희망	민간일자리 이행
직접일자리 전체	4,609	47.3	40.3
인턴형 전체	826	69.1	63.4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50	66.0	72.7

주: 만족도 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 참여 종료 후 민간일 자리를 희망하였는지, 실제 민간일자리 이행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주요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사립·사립대학 박물관의 학예·교육 전문인력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여 관련 분야의 민간일자리 이행을 목표로 하는 인턴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사업의 중요성이 일부 인정됨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2019~2023) (문체부, '19.6)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인정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와 내용상 연관되나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일자리사업 성과) 취업기회가 제한적인 박물관 학예·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청년 구직자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자리사업 성과가 인정되나 다른 인턴형 사업에 비해 취업 성과가 부진
 - 본 사업 참여자의 6개월 이내 취업률과 인턴사업장 취업률은 각각 33.1%와 13.2%로, 인턴형사업 전체 평균인 58.4%와 35.0%에 비해 크게 낮음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참여자의 숙련 제고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참여인력 인건비 중 최소 40만원을 참여 박물관 자부담으로 설정하여 참여자의 숙련 향상에 기여하기 어려운 부실 박물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에 따른 박물관 휴관에도 사업실적*이 양호하여 참여자의 숙련 향상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 학예인력 지원 118개 박물관에서 총 295건의 기획전시가 개최되었고, 교육인력 지원 99개 박물관에서 총 897회의 체험·교육프로그램이 개최됨.

○ (운영의 적절성) 사업운영 전반이 합리적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하 여 적절히 운영됨

- 박물관 특수관계인* 참여 제한, 안면인식 출결기기를 이용한 실 시간 근태관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후평가 등 사업운영 전반이 합리적

* 박물관 대표·설립자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코로나19에 따른 박물관 수익성 악화 및 참여율 하락에 대응하 고자 자부담율을 일시 경감하고 지속적인 참여 신청을 유도

○ (제도개선 노력) 자체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운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인정됨

- 참여 박물관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제출한 서면 평가 및 현장조사로 구성된 사업평가 실시

4 개선권고

□ 평가등급 : 개선 필요(감액)

○ 직접일자리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운영 필요

- 취업성과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 민간 부문(사립 및 사립 대학 박물관)의 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는 현행 사업운영 측면 등을 볼 때 직접일자리보다는 고용장려 금에 가깝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벽오지 박물관 등의 참여자 중도이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

* '20년 학예인력 136명 중 22명, 교육인력 118명 중 20명이 중도이탈

- 현재 일률적으로 산정된 지원금 수준을 박물관 소재지 및 모집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
- 일례로, 벽오지 박물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 수준을 박물관 자율 부담액과 연동하여 불리한 입지로 인재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박물관에 대한 지원 수준을 강화